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사례집

council.changwon.go.kr



창원특례시의회

<https://council.changwon.go.kr>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CONTENTS

인사말씀	04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05
도시발전연구회	08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18
미래일자리연구회	30
좋은조례연구회	42
도시리브랜딩연구회	54
미래전략산업연구회	64
관광정책개발연구회	76
지방재정연구회	88

CHANGWONSPECIAL CITY
COUNCIL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입니다.

창원특례시의회 ‘2026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사례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입법 대안 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직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각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과 소속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더욱 활발하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모든 의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6. 6.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손 태 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의원 연구 단체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창원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근 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구 성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중복가입 불가

등록 및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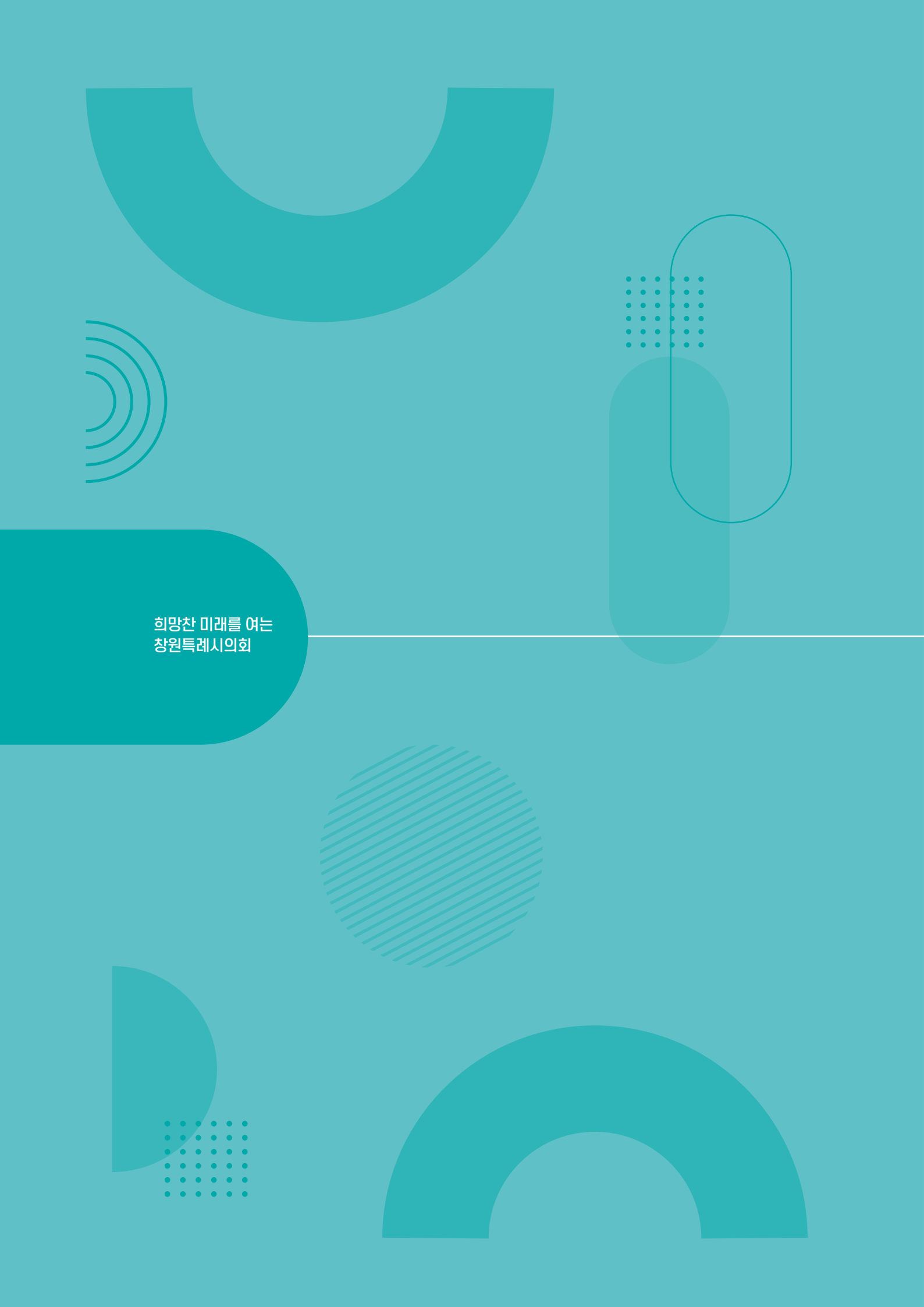
등록현황

- **구성근거**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3조, 제4조
- **등록현황** 8개 단체, 43명

연 번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연구목적	소속의원 (인원)	등록일
1	도시발전연구회 (김경수)	인구 유출, 도시 경쟁력 저하 문제 등을 극복하고 도시 내 주요 기능의 집중 및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김경수 강창석 김미나 이정희 이천수 한상석 박강우 (7명)	'22.7.25.
2	기후위기· 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서명일)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상생을 지향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창원시 정책연구와 그린뉴딜 정책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실천 정책을 연구하고자 함	서명일 김묘정 권성현 전홍표 홍용채(5명)	'22.7.25.
3	미래일자리 연구회 (진형익)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모색함으로써 창원 경제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함	김경희 김남수 김상현 백승규 진형익 (5명)	'22.7.25.
4	좋은조례 연구회 (성보빈)	지역사회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발굴, 제·개정하고자 함	성보빈 김이근 김현일 남재욱 황점복 (5명)	'25.1.20.
5	창원특례시 도시리브랜딩 연구회 (박승엽)	'창원특례시 도시 리브랜딩'을 주제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창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창원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함	김영록 김수혜 박승엽 안상우 이해련 최정훈 (6명) *민간전문가 6명	'25.1.20.
6	미래전략산업 연구회 (오은옥)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에 대한 가치를 연구하고자 함	오은옥 문순규 심영석 정순옥 최은하 (5명)	'25.1.20.
7	관광정책개발 연구회 (김혜란)	창원의 관광 자원 발굴 및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김혜란 구점득 김우진 박선애 서영권 (5명)	'25.1.20.
8	지방재정 연구회 (박해정)	창원특례시 재정 관리의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기 위함	박해정 이우완 이원주 정길상 한은정 (5명)	'25.1.20.

*민간전문가 : 김호성, 박정의, 박준용, 안성수, 남호준, 김민성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도시발전 연구회

CHANGWONSPECIAL CITY
COUNCIL

인사말씀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 경 수**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경수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창원시 5개 행정구의 기능적 불균형 요소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 모색을 목표로 올해의 연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0년 통합 이후 창원시가 외형적·물리적 통합에만 치우쳐왔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도시의 진정한 융합을 이루기 위해 「통합창원시 도시구조 재편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행정·공간 거점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인구 구조와 주택 비용, 산업 및 고용 구조, 대중교통 체계 등 도시 전반의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일반구가 저마다 상이한 도시 문제와 동시에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회는 창원특례시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정주혁신과 산업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일반구별 기능 재편'이라는 거시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의 접근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제안들이 창원시의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5개 일반구가 소외됨 없는 모두가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연구회 회원



대표
김 경 수



의원
강 창 석



의원
김 미 나



의원
박 강 우



의원
이 정 희



의원
이 천 수



의원
한 상 석

「도시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개요

- **기 간** 2026. 1. 23. ~ 5. 8.
- **주 제** 창원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 **목 적**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에도 일반구 간 격차와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화학적 통합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각 권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 각 일반구별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분야에 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연구회원** 7명(대표 김경수, 강창석, 김미나, 박강우, 이정희, 이천수, 한상석)

연구활동

내용

- 2026. 2. 23.(월) 「통합창원시 도시구조 재편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행정, 공간 거점 연구」 용역 시행
- 2026. 3. 4.(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4. 27.(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 정책연구용역 시행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통합창원시 도시구조 재편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행정, 공간 거점 연구	(주)리컴퍼니	2026. 2. ~ 5.

2.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3. 4.(수) 10:3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진행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



3.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4. 27.(월) 10:3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연구활동 언론 보도자료

HOME > 지역 > 부산-경남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 행정구 불균형 해소 연구 시작

A 박유재 기자 | 2026-03-04 08:15:36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발전연구회가 4일 창원시 9개 행정구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대일한국 박유재 기자]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가 5개 행정구의 기능적 불균형 요소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회는 올해 '통합창원시 도시구조 재편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행정공간 거점연구'를 주제로 창원시 행정기능 배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구조적 재배치 등 해법 찾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창원시 뉴비즈니스형 단독주택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연구활동으로 통합시 출범 후의 지역 간 차등 요소에 따른 정서적 통합의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회 김정수 대표의원은 "지난 2010년 통합 이후 창원시는 외형적인 물리적 통합에만 집중해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통합창원시로 나아갈 수 있는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진행해 현장감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박유재 기자 pjj552@hanmail.net

저작권자 © 대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 3. 4.(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창원시의회, 통합창원시 권역별 균형 발전 방안 도출

메트로신문 송병호 기자 | 2026-04-30 08:37:02



사진/창원특혜시의회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가 통합창원시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기능 재편 방안을 내놨다.

도시발전연구회는 지난 2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통합창원시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기능 재편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착수 보고회에서 통합 시청사 소재지로 도시 인프라가 집중되는 윙클 현상이 행정구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16년간의 도시 변화, 행정비용, 주민 체감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구 구조, 주택 비용, 산업 고용 구조, 대중교통 체계 등 도시 전반의 현황을 살피고, 대학교수 3인·전문가 1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통합 이후 16년이 지난음에도 화학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별 행정구 간 연결성이 강화될 때 창원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송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 2026. 4. 27.(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활동 결과

(단위 : 건)

합 계	간담회 및 보고회	토론회 및 강연회	비교견학	연구용역
3	2	—	—	1

연구활동 결과

- 연구회는 창원특례시가 2010년 통합 이후 산업·도시·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지역 간 기능 불균형, 원도심 쇠퇴, 산업구조 전환 지체, 대중교통 및 생활인프라 격차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일반구별 인구 구조와 경제·사회구조, 지역자원, 생활권 특성, 교통연계, 산업기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역의 기능을 어떻게 보완하고 재편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정책연구 용역 결과

- 「통합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기능 재편 연구」는 창원특례시의 도시구조와 기능 배치 현황을 분석하고, 통합 이후 지속되고 있는 권역 간 불균형과 지역별 기능 약화 문제를 진단하여 일반구별 맞춤형 발전전략과 창원특례시 전체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과정에서 창원특례시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연령대별 인구 구성, 전출입 흐름, 산업 및 경제사회 구조,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체계, 주거 및 정주여건,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5개 일반구가 각각 상이한 도시문제와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의창구는 순환교통체계, 로컬푸드와 도시소비자 연결, 북면 방산산업 거점화, 읍면 복합생활거점 연계 등을 통해 성산구 산업경제를 보완하는 배후지원권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성산구는 기존 산업의 DX·AX 전환, 메카트로닉스·로봇·방산·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제조업 내 서비스업종 확대, 산단 내 청년 1인 주거공간과 생활인프라 조성, 직주근접형 산업생활권 형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마산합포구는 고령자 친화 생활인프라 보완, 삼진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성, 통합형 도시재생 전략, 수산물 가공 및 관광형 먹거리 콘텐츠 개발, 구산면 등 자연지형을 활용한 해양레저·체류형 관광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마산회원구는 봉암산업권의 미래차·정밀부품·디지털 제조산업 전환, 산업공간의 복합화, 내서와 양덕 생활권 연결성 강화, 고령친화 생활서비스 확충, 창원NC파크·마산역·임항선 그린웨이와 지역상권의 연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 진해구는 진해신항 배후항만 서비스 산업 육성, 통관·검사·검역·콜드체인·수출입 지원 등 물류 비즈니스 기능 강화, 군항 원도심의 근대 역사문화 관광 거점화, 군 관련 역사·안보·해양교육 콘텐츠 개발, 사계절 해양·군항·문화관광 산업 육성, 권역 간 이동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 연구용역은 최종적으로 창원특례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주혁신과 산업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반구별 재정 배분의 문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일반구별 기능 재편과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 도시발전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특례시의 권역별 기능 재편과 균형발전 전략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일반구별 특성에 맞는 후속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에서 제시된 대중교통 지선·간선 체계 개선, 권역 간 이동 인프라 확충, 고령친화 생활 인프라 보완, 산업단지 복합화, 제조업 DX·AX 전환, 배후 항만 서비스산업 육성, 원도심 및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등 주요 과제가 창원시의 중장기 도시정책과 부서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기후위기·
그린뉴딜
정책
연구회

CHANGWONSPECIAL CITY
COUNCIL

인사말씀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 명 일**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서명일입니다.

본 연구회는 작년,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혁신적 제도인 「창원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간담회를 통해 산업도시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산업의 정의와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 조례(안)를 직접 설계하였으며,

아울러 ‘창원형 기후테크 기업 지정 제도’ 마련을 위해 평가 및 지정 기준을 정립하고, 유망·성장·선도 등 성장 단계별 지정 체계를 도출함으로써,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창원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후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날까지, 입법 및 정책 연구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회원



대표
서명일



의원
권성현



의원
김묘정



의원
전홍표



의원
홍용채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개요

- **기 간** 2026. 1. 23. ~ 5. 8.
- **주 제**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연구
- **목 적** 제조산업의 혁신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테크 융합 산업 육성 전략 발굴
- **연구회원** 5명(대표의원 서명일, 권성현, 김묘정, 전홍표, 홍용채)

연구활동

내용

- 2026. 2. 3.(화) 기후위기 그린뉴딜 정책연구회 간담회 개최
- 2026. 2. 24.(화)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연구」 용역 시행
- 2026. 3. 10.(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4. 27.(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간담회 개최

- 일 자 2026. 2. 3.(화) 13:3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의 필요성, 창원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등 논의



2. 정책연구용역 시행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연구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2026. 2. ~ 5.

3.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3. 10.(화) 13: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연구용역 진행 방향·세부계획 논의 및 질의응답



4.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 자 2026. 4. 27.(월) 13: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연구활동 언론 보도자료

BreakNews

창원특례시의회, '기후테크'로 미래 먹거리 캔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기후테크 산업 육성' 상반기 과제 확정

이성환 기자 | 기사입력 : 2026/02/03 [15:44:11]



▲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3일 간담회를 통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상반기 연구과제로 결정했다.

[브레이크뉴스=이성환 기자] 굴뚝 산업의 상징이었던 창원특례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창원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대표의원 서명일)'는 3일 간담회를 통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올해 상반기 핵심 연구과제로 확정했다.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전환을 이끄는 모든 혁신 기술을 뜻한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서명일, 권성현, 김요정, 이원주, 전홍표)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를 창원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보았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 기업이 밀집한 창원시의 특성상, 기후테크는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된 기술이다. 연구회는 창원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실질적인 탈탄소 경제를 실현할 '창원형 기후테크 모델'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데일리한국

HOME > 지역 > 부산·경남

창원시의회,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만든다

A 박유제 기자 | © 승인 2026.02.03 16:51

기후위기연구회 올 연구 과제로 "기후테크" 설정
'기후테크에서 탈탄소 답 찾는다' 산업모델 발굴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3일 간담회를 가진 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창원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3일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상반기 연구과제로 결정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뜻한다.

연구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서명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성현, 김요정, 이원주, 전홍표 의원 등이 참석해 "탄소중립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산업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2026. 2. 3. 정책연구회 간담회 추진

○ 뉴시스

창원시의회 연구회, 기후테크 산업 육성 연구 나섰다

입력 2026.03.11. 오전 10:05 수정 2026.03.11. 오전 10:06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10일 경남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탄소중립 대응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전날 착수보고회를 열고 창원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한 기후테크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보고회에서는 탄소중립 대응 능력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창원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연구회는 인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와 경기 성남 기후테크지원센터 등을 방문

▲ 2026. 3. 10.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뉴시스

창원시의회 연구회,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안 제시

입력 2026.04.28. 오후 1:41 수정 2026.04.28. 오후 1:42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창원형 기업 지정 제도 도입 구상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 기후테크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창원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가칭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회는 전날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산업 정의와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창원형 기후테크 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기술 수준과 사업 영역에 따라 유망·성장·선도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회는 기후테크 산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분류를 진행하고, 이후 기술 수준과 사업 영역 등 기업 관련 데이터에 기후테크 산업 특성을 반영한다.

▲ 2026. 4. 27.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활동 결과

(단위 : 건)

합 계	간담회 및 보고회	토론회 및 강연회	비교견학	연구용역
4	3	—	—	1

연구활동 결과

- 연구회는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흐름과 주요국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에 대응하여, 창원시가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전환형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기후테크 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단순 기술 영역이 아닌 산업 및 시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투자·인재양성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기후테크 산업의 분류체계 미정립, 제도 기반 미흡, 기술개발 이후 실증·사업화 단계로의 연계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창원시 여건에 적용하여 정책적 보완 필요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특히 창원시의 기계·자동차·조선 중심 제조업 구조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정 혁신, 탄소저감 기술 등 기후테크와의 기술적 접점을 분석하고, 산업단지·연구기관·공공 인프라 등 실증 및 사업화 기반을 활용한 산업 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기후테크 기업의 규모 및 분포, 산업 생태계 수준을 분석하여 기업 간 협력, 기술 실증, 투자 연계 측면에서의 한계를 도출하고, 산업 성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태계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연구회는 연구활동이 진행될 때마다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을 참여시켜 산업 현장의 의견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단순한 이론적 검토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피드백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창원시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효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였다.

정책연구 용역 결과

-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연구」를 수행하며, 창원시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과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였다. 글로벌 및 국내 산업 동향 분석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사업화·시장으로 확장되는 산업임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이 분류체계 미정립, 지원체계 단절 등 구조적 한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의 산업단지, 연구기관, 공공 인프라 등 실증 및 사업화 기반을 활용한 전환형(Transition) 산업 육성 전략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창원시 기후테크 기업의 규모, 종사자 비중, 성장 단계 등을 분석하여 산업이 소규모·초기 단계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 실증 이후 상용화 및 시장 진입 단계에서 지원 부족이 주요 병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실증·사업화·투자 연계가 가능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기업 간 협력 및 기술 네트워크 강화, 투자유치 및 판로 확대 전략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중심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산업 전략과 정책 지원을 구분하는 이원적 접근을 기반으로, 전담 컨트롤 타워 구축, 기후테크 산업 분류체계 및 기업 DB 정립, 클러스터 조성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단계별 실행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마련 및 기후테크 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기후테크 산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분류체계 및 기업 DB 구축을 통해 정책 의사 결정 기반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실증·사업화·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기술협력 네트워크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단지 및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기반 확충과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기후테크 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 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환류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light purpl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geometric elements: a large, thick, U-shaped arc at the top; a series of concentric semi-circular lines on the left; a vertical oval with a dotted pattern inside on the right; a thick, rounded horizontal bar on the left containing the tex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in the lower center; a semi-circle with a dotted pattern at the bottom left; and a thick, U-shaped arc at the bottom. A thin white horizontal line runs across the middle of the page.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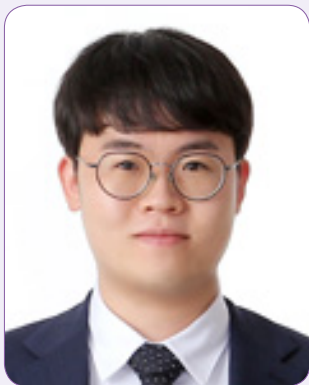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미래일자리 연구회

CHANGWONSPECIAL CITY
COUNCIL

인사말씀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 형 익**

반갑습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의원 진형익입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창원시의 내일을 밝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2026년 ‘제조업 도시 창원’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앞으로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질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지난 4년간 발굴해 온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들을 단발성 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여 ‘맞춤형 입법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드론, 노인 일자리, 로봇, 인공지능(AI) 등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5대 핵심 신산업 및 일자리 분야’의 기존 연구 성과를 면밀히 진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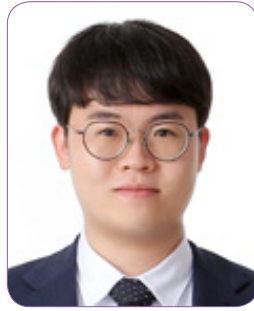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전국 21개 이상 선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창원형 맞춤 조례’ 설계를 위한 핵심 시사점과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자치법규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도입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창원시의 산업과 일자리가 병행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책임을 함께 고민 하는 연구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일자리연구회」 회원



대표
진형익



의원
김경희



의원
김남수



의원
김상현



의원
백승규

「미래일자리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개요

- **기간** 2026. 1. 23. ~ 4. 30.
- **주제** 미래일자리 정책 성과의 제도화 및 조례 설계 연구
- **목적** 본 연구는 미래일자리연구회가 그간 추진해 온 미래인재 양성, 노인 일자리, 신산업·서비스 일자리(드론, 반려동물, 문화콘텐츠) 등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회원** 5명(대표 진형익, 김경희, 김남수, 김상현, 백승규)

연구활동 내용

- 2026. 2. 2.(월) 미래일자리연구회 간담회 개최
- 2026. 2. 23.(월) 「미래일자리 정책 성과의 제도화 및 조례 설계 연구」 용역 시행
- 2026. 2. 24.(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4. 17.(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 미래일자리연구회 간담회 개최

- 일 자 2026. 2. 2.(월) 13: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2026년 연구활동 세부계획 논의



2. 정책연구용역 시행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미래일자리 정책 성과의 제도화 및 조례 설계 연구	(주)하이뷰랩	2026. 2. ~ 4.

3.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2. 24.(화) 11:00
- 장 소 제2별관 3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착수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



4.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4. 17.(금) 11: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연구활동 언론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시사코리아저널

출 > 정치
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 4년 연구 성과 '제도화' 추진
 기사승인 2026.02.24 19:06:00

가- 가+

- 착수보고회 열고 조례 정비 및 사업 반영 등을 위한 심화연구 시작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는 24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 간 수행해 온 정책연구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심화연구를 시작했다.

연구회는 제로업이 창원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다가올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필수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활동해 왔다.

이에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 지원정책 연구,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 연구, 문화산업 육성 연구, 미래인재 양성사업 실태조사 연구 등 관련 연구과제 6건을 수행했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지난 15년간 12만 명의 청년 연구가 유출된 창원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창원의 미래를 제로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지난 연구 결과와 정책 또는 사업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해 분야별 조례 정비 및 사업 반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WE 웨이코노미

경남

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 4년 연구 성과 제도화 추진

김영섭 기자 입력 2026.02.24 16:06 | 댓글 0



미래일자리연구회 착수보고회 (출처: 창원특례시의회) / 2026.02.24

[웨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는 24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4년간의 정책연구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심화연구에 들어갔다.

연구회는 창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드론산업, 반려동물 일자리, 문화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6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창원의 미래를 제로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와 사업 반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26. 2. 24.(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4. 17.(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활동 결과

(단위 : 건)

합 계	간담회 및 보고회	토론회 및 강연회	비교견학	연구용역
4	3	—	—	1

연구활동 결과

- 연구회 활동을 통해 창원특례시 미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반려동물, 드론, 노인 일자리, 로봇, 인공지능 등 5대 핵심 신산업 및 일자리 분야의 기존 연구 성과를 진단하고, 전국 21개 이상의 선도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창원형 맞춤 조례 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착수보고와 최종보고를 통해 정책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3단계 입법 가교’ 프로세스를 구체화하였으며, 창원국가산단의 제조 경쟁력과 방위산업 특화 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조례 제·개정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시의회 의원들이 즉시 입법 발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5분 자유발언(안)’을 입체적으로 설계하여 정책의 입법 실행력과 제도적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 최종보고 결과를 토대로 미래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자치법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재정 연계 전략 및 통합 거버넌스 이행 가이드라인을 핵심 정책 과제로 마련하였다.

정책연구 용역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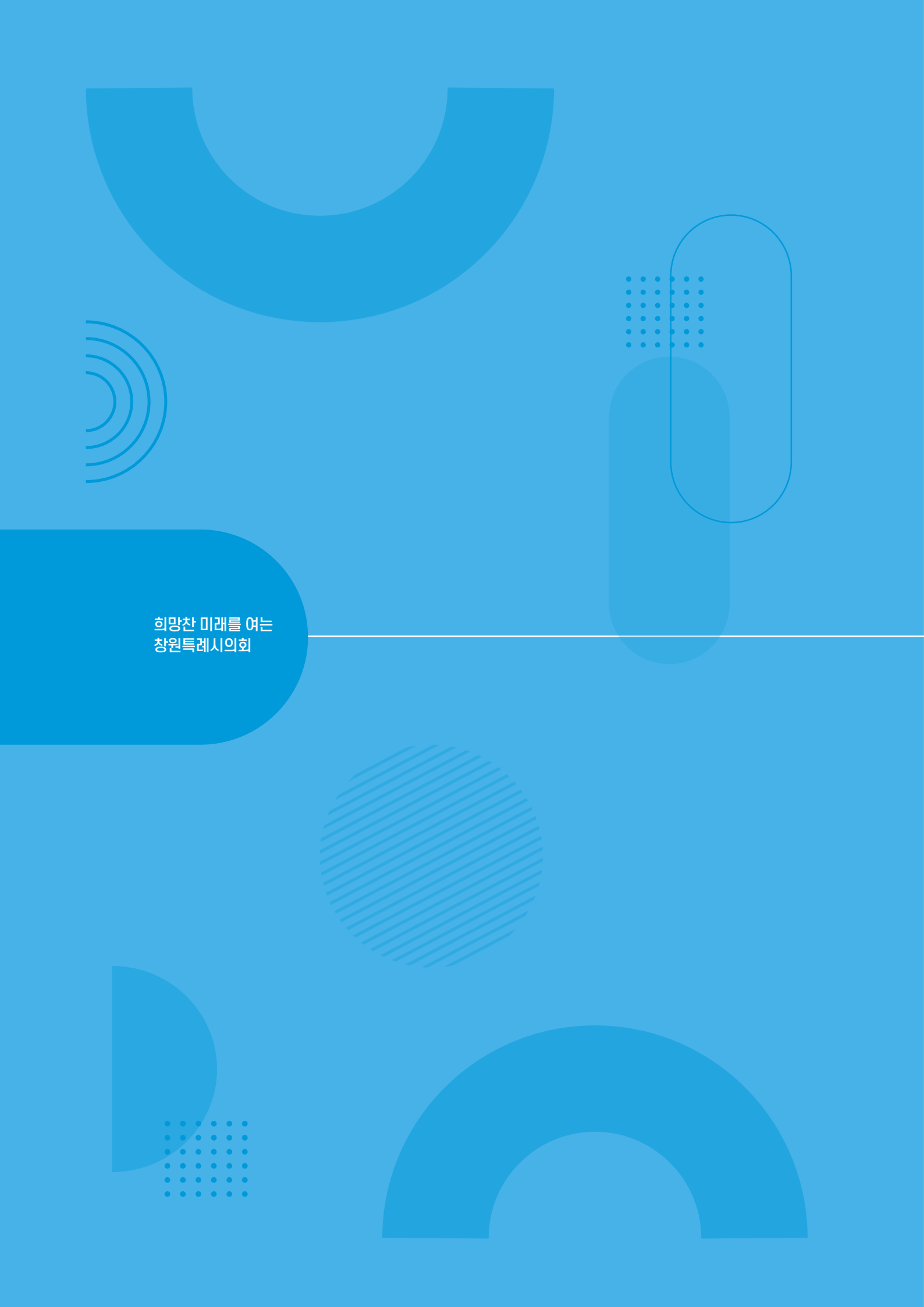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창원특례시 미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정책 성과들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반려동물 산업, 드론 산업, 노인 일자리, 로봇 분야, 인공지능 등 5대 핵심 분야의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서별 분절적 추진 구조와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반려동물 분야는 단순 복지를 넘어 펫테크와 체류형 관광 경제를 포괄하는 조례의 신규 제정을 제안하였고, 드론 분야는 방산 혁신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티드론(Anti-Drone) 방호 체계 및 유지보수(MRO) 거점화를 명문화하였다. 노인 일자리 분야는 고숙련 은퇴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생산적 복지 모델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로봇 및 AI 분야는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개념의 선제적 도입과 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인간 개입’ 원칙을 제도화하였다.

- 결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 기반의 조례안 전문과 의원별 ‘5분 자유발언(안)’을 포함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2단계 입법 로드맵과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미래 일자리 통합 컨트롤타워’ 상설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향후 계획

-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드론, 노인 일자리, 로봇, 인공지능(AI) 등 5대 핵심 분야를 창원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2단계 조례 제·개정 로드맵’을 가동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드론 산업의 안티드론 방호 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의 전문 역량 활용형 구조 전환, AI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산업의 체류형 경제 인프라 구축과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규 조례 제정을 2~3년 내에 추진하여 도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둘째, 선제적으로 정비된 조례를 전략적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례에 명시된 정책적 근거와 ‘드론산업 육성 기금’ 등 전용 자원 확보 방안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창원특례시가 국비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 일자리 통합 컨트롤타워’ 상설화를 추진하고, 정책 도입 전 ‘사전 조직 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은퇴자 전문 인재 풀(Pool)’ 구축과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 등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좋은조례 연구회

CHANGWONSPECIAL CITY
COUNCIL

인사말씀



좋은조례연구회
대표의원 **성 보 빈**

반갑습니다.

좋은조례연구회 대표의원이자 최연소의원, 성보빈입니다.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사권 중에서 저는 의정활동의 꽃이자 핵심은 바로 자치입법권, 즉 ‘조례 발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좋은조례연구회’는 100만 창원특례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발굴하고 제·개정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연구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시민의 조례 참여 경험과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총 34건의 조례안 중 법적 타당성, 정책 필요성, 실행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최종 10건을 핵심 입법 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입법 수요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자치법규 전반을 꼼꼼히 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조례안들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현안을 담고 있어 실제 의정 현장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연구단체 활동에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조례연구회’가 걸어온 길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좋은 조례’로 보답하는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좋은조례연구회」 회원



대표
성 보 빈



의원
김 이 군



의원
김 현 일



의원
남 재 욱



의원
황 점 복

「좋은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개요

- **기 간** 2026. 1. 23. ~ 5. 8.
- **주 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발굴 연구
- **목 적** 미래 발전 및 민생과 직결된 조례를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드는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함
- **연구회원** 5명(대표의원 성보빈, 김이근, 김현일, 남재욱, 황점복)

연구활동

내용

- 2026. 2. ~ 5.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발굴 용역 시행
- 2026. 2. 27.(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2. ~ 4.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 실시
- 2026. 4. 22.(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공모전 시상식 개최



1. 정책연구용역 시행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발굴	(주)한국경영연구소	2026. 2. ~ 5.

2.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2. 27.(금) 11: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진행상황 착수보고 및 질의응답, 향후일정 논의



3.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일 자 2026. 4. 22.(수) 16: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조례안 공모전 시상식 및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회·질의응답



연구활동 언론 보도자료

TimeNews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전체 정치 사회 생활경제 자치행정 교육 우리지역 문화 국제 킬링 사실

동 / 자치행정

자치행정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올해도 민생조례 공모전 추진

김정욱 기자 news@timenews.co.kr 기사입력 2026-02-28 09:01:01 창원



▲ 착수보고회

[창원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는 27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연구회는 올해도 시민 참여 공모전을 추진한다.

연구회는 시민의 행정 수요에 적합한 조례 발굴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오는 3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모전의 일정 및 심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제안이 실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구회 소속 김이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148회 정례회에서 '창원시 고래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공모전에서는 재외동포 주민 정착을 비롯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ESG 생태계 조성, 누비자 적자 개선, 청년 창업 전주기 지원 등 관련 내용으로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선정했었다.

성보빈 대표의원은 "지난해 공모전에 현장의 민원을 전달해 주시는 시민이 매우 많았다"며 "공모전이 조례 제안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생생한 과정이 되고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종에 강한 인터넷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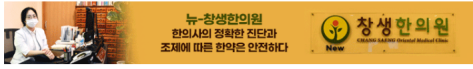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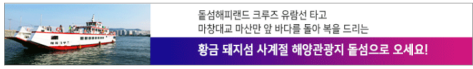
시사 코리아뉴스 Sisa Korea News 정치종합 경제종합 사회종합 전국종합 경

지중합

좋은조례연구회, 올해도 민생조례 공모전 추진

연구회 활동 시작...민생 조례 발굴 및 현안 해결 지원 나서

최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3/01 08:53


▲ 좋은조례연구회, 올해도 민생조례 공모전 추진

[시사코리아뉴스/최은희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27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연구회는 올해도 시민 참여 공모전을 추진한다.

연구회는 시민의 행정 수요에 적합한 조례 발굴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오는 3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모전의 일정 및 심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제안이 실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구회 소속 김이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148회 정례회에서 '창원시 고래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공모전에서는 재외동포 주민 정착을 비롯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ESG 생태계 조성, 누비자 적자 개선, 청년 창업 전주기 지원 등 관련 내용으로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선정했었다.

한편 성보빈 대표의원은 "지난해 공모전에 현장의 민원을 전달해 주시는 시민이 매우 많았다"며 "공모전이 조례 제안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생생한 과정이 되고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 2. 27.(금) 착수보고회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시민 삶의 질' 향상 조례 아이디어 발굴 22일 최종보고회 개최...안전·복지 등 민생분야 조례안 제안 5명 선정

[경남] 양건영 기자 kspa@jeonpil.com | 기사입력 2026/04/23 10:57



▲ 좋은조례연구회 최종보고회

[정필=경남] 양건영 기자 kspa@jeonpil.com]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는 22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우수 조례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기간 모두 34건이 접수됐다.

공모 종료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성, 실현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시민 5명이 제안한 우수 조례안 10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창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창원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시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민생조례 공모전은 시민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지 © 정필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pay
카카오페이
정필 후원하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영웅의집
정필 후원하기

정치&외교



이재명 대통령 부부, 사



수다
기

파이낸셜경제 | 키비스토리 | 금융·경제 스페셜 | Weekly 기획특집 | 비즈니스 포커스 | 뉴스투데이 >

22일 최종보고회 개최...안전·복지 등 민생분야 조례안 제안 5명 선정



▲ 좋은조례연구회 최종보고회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는 22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우수 조례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기간 모두 34건이 접수됐다.

공모 종료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성, 실현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시민 5명이 제안한 우수 조례안 10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창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창원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 2026. 4. 22.(수) 최종보고회

연구활동 결과

(단위 : 건)

합 계	간담회 및 보고회	토론회 및 강연회	비교견학	연구용역
3	2	—	—	1

연구활동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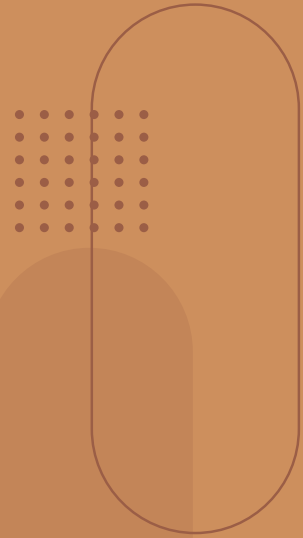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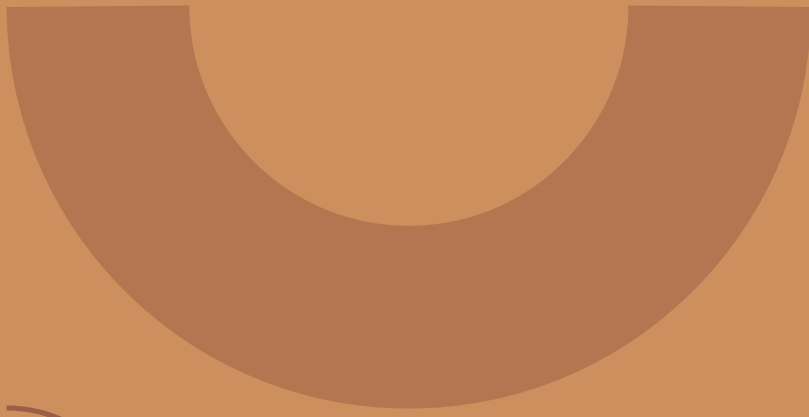
- 좋은조례연구회는 제147회 기준 의원 발의 조례가 3대 167건에서 4대 394건으로 증가한 흐름을 바탕으로, 단순 건수 확대를 넘어 실질적 정책 성과 창출을 목표로 2026년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 시민과 전문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민생 입법 수요를 분석하고, 창원시 자치법규 전수 검토를 병행하여 제·개정 필요 조례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총 34건의 시민 제안 중 11건의 유효 조례안을 선별하고, 최종 10건을 핵심 입법 과제로 확정하였다. 특히 교통안전, 청년복지, 노동환경, 디지털 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민생조례 공모전 결과를 실제 조례 발의로 연계하여 연구와 입법 간 실행 구조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시민참여·전문가 검토·의회 심의·입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향후 연구회 소속 5인의 의원이 각 2건씩 총 10건의 조례를 차기 회기에 발의할 예정이며, 이는 연구성과의 실질적 정책 구현 단계로 이어질 것이다.
- 2026년 좋은조례연구회의 연구활동은 시민참여형 정책 발굴과 입법 실무 역량 강화를 결합하여, 향후 지속적인 정책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연구활동은 단순 조사 수준을 넘어 실행형 정책 설계로 발전하였다. 시민 참여 기반 데이터 분석이 입법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구축되었다. 교육과 교류를 통해 입법 역량이 강화되었다. 향후 10건의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정책연구 용역 결과

-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발굴」 본 정책연구용역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문제를 조례로 구체화하여 창원시 민생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시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입법 수요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총 34건의 제안 중 법적 타당성, 정책 필요성,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11건의 유효 조례안을 선정하고, 최종 10건을 핵심 입법 과제로 확정하였다.
- 조례안은 5개 분야로 구조화하였다. 교통·안전 분야는 「창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창원시 보행권 보호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으로 구성하였다. 청년·복지 분야는 「창원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창원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으로 설계하였다. 노동·생활안전 분야는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안전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 확대 조례안」으로 구성하였다. 가족·돌봄 분야는 「창원시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조례안」, 「창원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으로 반영하였다. 디지털·교육 분야는 「창원시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체계화하였다.
- 각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재정지원, 민관 협력체계를 포함하는 실행형 구조로 설계하였다. 또한 시민참여·전문가 검토·의회 심의·입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입법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민생조례 발굴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계획

- 연구회의 활동과 본 연구구역에서 도출된 10건의 민생조례안을 중심으로 단계적 입법 및 정책 실행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조례연구회 소속 5인의 의원이 각 2건씩 총 10건의 조례안을 차기 회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 발의 이전에는 상위법 정합성, 재정 소요, 부서 협의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중기적으로는 조례 제정 이후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각 조례안에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범사업 추진, 민관 협력체계 구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례가 선언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交通安全, 청년복지, 노동환경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는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정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 기반 민생조례 발굴 시스템을 정례화할 것이다. 시민 공모,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의회 심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생 입법 과제를 상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타 지방의회 및 연구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하고, 창원시 조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 향후 계획은 입법·집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전 과정의 체계화를 통해 민생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구현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도시 리브랜딩 연구회

CHANGWONSPECIAL CITY
COUNCIL

인사말씀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
대표의원 **박 승 업**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 대표의원 박승엽입니다.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는 창원특례시의 새로운 도약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머물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활력 넘치는 창원을 만들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도시브랜드가 특례시의 높은 위상과 미래 비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여, 브랜드의 통합 관리와 전략적 리브랜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원도시리브랜딩과 연계된 지역 축제 연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창원특례시 지역축제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날카롭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문화활동 및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기획과 운영의 당당한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역축제 모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회는 청년 참여 확대와 도시 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축제 모델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의 축제 정책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 중심·공간 기반·산업 연계·체류형 구조'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하며, 축제 자체가 도시 성장과 도시 브랜드 형성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혁신적인 정책 제안들이 창원시의 실제 축제 현장과 문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연구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 회원



대표
박 승 엽



의원
김 수 혜



의원
김 영 록



의원
안 상 우



의원
이 해 련



의원
최 정 훈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개요

- **기간** 2026. 1. 23. ~ 3. 31.
- **주제** 창원도시리브랜딩과 연계된 지역 축제 연구
- **목적** 창원특례시 지역축제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청년 문화활동 및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년이 기획·운영의 주체가 되는 지역축제 모델(안)을 제시
- **연구회원** 12명
 *의원 6명: 대표의원 김영록, 김수혜, 박승엽, 안상우, 이해련, 최정훈
 *민간의원 6명: 김호성, 박준용, 박정의, 안성수, 남호준, 김민성

연구활동

내용

- 2026. 2. 24.(화) 「창원도시리브랜딩과 연계된 지역 축제 연구」 용역 시행
- 2026. 2. 27.(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3. 27.(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 정책연구용역 시행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창원도시리브랜딩과 연계된 지역 축제 연구	에스에스(SS) 연구원	2026. 2. ~ 3.

2.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2. 27.(금) 16: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정책연구용역 결과 착수보고, 질의 응답 및 향후 일정 논의



3.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3. 27.(금) 16: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연구활동 언론 보도자료

창원시의회 도시 리브랜딩 연구회,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 박민연 기자 | ⓒ 승인 2026.03.02 14:03

청년 주도형 축제 운영 방안 마련 본격 착수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도시 리브랜딩 연구회는 '창원 도시 리브랜딩과 연계된 지역 축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도시 리브랜딩 연구회는 지난달 27일 '창원 도시 리브랜딩과 연계된 지역 축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 주도형 축제 운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회는 청년이 기획과 운영의 주체로 참여한 다른 지역의 축제 사례를 분석하고, 창원형 청년 주도 축제로 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도시 창원의 특성과 청년 창업·로컬 콘텐츠를 결합한 축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축제가 청년 유입과 정주 기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창원의 상징성을 갖춘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2026. 2. 27.(금) 착수보고회 개최

창원시의회 연구회 "청년이 이끄는 축제로 도시 경쟁력 강화"

▲ 박민연 기자 | ⓒ 승인 2026.03.29 13:33

나이트린·워터밤 등 제안...기획·운영 참여 확대 필요성 제기



[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도시리브랜딩연구회는 청년 중심의 축제 구조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축제를 단순 행사에서 벗어나 청년 활동과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회는 지난 27일 '창원 도시리브랜딩과 연계된 지역축제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축제가 청년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획과 운영 단계부터 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회에서는 '마창대교 나이트린'과 '창원광장 워터밤' 등 청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안됐다.

▲ 2026. 3. 27.(금)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활동 결과

(단위 : 건)

합 계	간담회 및 보고회	토론회 및 강연회	비교견학	연구용역
4	3	—	—	1

연구활동 결과

- 본 연구는 창원특례시의 지역축제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청년 참여 확대와 도시 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한 축제 모델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기존의 관 주도·행사 중심 축제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이 기획과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고, 도시의 산업·공간·문화 자원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 하였다.
- 첫째, 창원시 지역축제는 전반적으로 콘텐츠 다양성과 참여 구조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반복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용역 의존 구조로 인해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축제를 단순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 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 둘째, 청년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다. 청년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기획자·운영자로서 축제의 콘텐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주체이며, 청년 기획단, 청년 디렉터 제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축제의 트렌드 반영, 참여형 콘텐츠 확대, 디지털 기반 홍보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셋째, 창원형 축제 모델은 ‘공간 기반’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군항제·국화축제·K-POP 페스티벌 개편 ▲거리상권 기반 축제 ▲세모로 페스타 플랫폼화 ▲대학 연합 축제 ▲산업 연계형 축제 ▲해양 및 랜드마크 활용 축제 등은 각각의 공간과 자원을 중심으로 설계된 모델이다. 이는 도시 전역을 축제 공간으로 확장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핵심 전략이다.
- 넷째, 지역 산업과의 연계는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원의 제조·방산·조선 산업, 해군 및 해양 자원, 로컬 식음료 및 주류 산업 등을 축제 콘텐츠와 결합할 경우, 단순 소비를 넘어 산업 홍보 및 체험, 일자리 창출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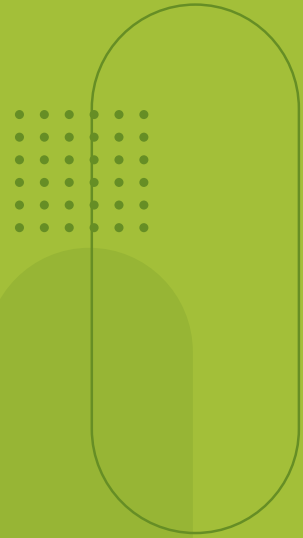
- 다섯째, 체류형·야간형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이트런, 워터밤, 돌섬 야시장 등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모두 체류시간을 늘리고 야간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며, 관광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여섯째, 프로스포츠 및 대학 자원을 활용한 축제는 창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복수의 프로구단과 대학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도시는 전국적으로 제한적이며, 이를 연계한 통합형 축제는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연구 공역 결과

- 종합하면, 창원특례시의 축제 정책은 ‘청년 중심·공간 기반·산업 연계·체류형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축제를 도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축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축제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창원형 축제 모델은 단순한 행사 개선을 넘어 도시의 문화·경제·산업을 통합하는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창원을 ‘머무르는 도시’, ‘즐기는 도시’, ‘청년이 주도하는 도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계획

- 본 연구회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형 축제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서, 지역 대학, 청년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향후에는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산하며, 창원시 축제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미래전략 산업 연구회

CHANGWONSPECIAL CITY
COUNCIL

인사말씀



미래전략산업연구회
대표의원 **오 은 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 대표의원 오은옥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와 주력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 인공지능(AI)·방위산업·지능형 기계와 로봇 등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유망산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산업도시들의 선진 사례를 살피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창원의 산업고도화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도출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회는 창원특례시가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에서 제조 AI, 스마트제조,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기술과 연계된 '미래전략산업 중심 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기존 제조업의 강력한 경쟁력을 단단하게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조류인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유기적으로 병행하는 '창원형 산업전환 전략'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중한 중·장기 정책들이 제안에 머물지 않고, 창원의 국가산단과 기업 현장에 유기적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와 의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대표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활동에 함께 애써주신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 회원



대 표
오 은 옥



의 원
문 순 규



의 원
심 영 석



의 원
정 순 옥



의 원
최 은 하

「미래전략산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개요

- **기 간** 2026. 1. 23. ~ 5. 8.
- **주 제** 미래전략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목 적**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에 대한 가치를 연구하고자 함
- **연구회원** 5명(대표 오은옥, 문순규, 심영석, 정순옥, 최은하)

연구활동

내용

- 2026. 2. 3.(화) 미래전략산업연구회 간담회 개최
- 2026. 2. 27.(금)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친화형 산업고도화 실행전략 연구」 용역 시행
- 2026. 3. 5.(목)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5. 4.(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 미래전략산업연구회 간담회 개최

- 일 자 2026. 2. 3.(화) 09:3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2026년 연구활동 세부계획 및 연구용역 일정 논의



2. 정책연구용역 시행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친화형 산업고도화 실행전략 연구	(사)첨단제조산업 기술연구원	2026. 2. ~ 5.

3.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3. 5.(목) 11:3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진행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



4.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5. 4.(월) 10: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연구활동 언론 보도자료

창원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원 산업 고도화 방향 논의

A 경남-최근내 기자 | © 승인 2026.02.04 06:44

|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기후테크에서 탈탄소 담 찾는다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 간담회 후 사진촬영 모습. (사진=창원시의회 사무국)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3일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창원시 산업 구조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가 올해 추진할 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인 산업 육성 논의를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고령 인구 정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창원시 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한계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는데 대기업에 비해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력과 재장·기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산업 전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오은옥 대표의원은 "미래 산업은 특정 분야 하나만을 키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간담회는 연구의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창원시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 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2026. 2. 3.(화)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원 산업 고도화 방향 논의

A 경남-최근내 기자 | © 승인 2026.02.04 06:44

|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기후테크에서 탈탄소 담 찾는다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 간담회 후 사진촬영 모습. (사진=창원시의회 사무국)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3일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창원시 산업 구조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가 올해 추진할 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인 산업 육성 논의를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고령 인구 정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창원시 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한계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는데 대기업에 비해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력과 재장·기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산업 전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오은옥 대표의원은 "미래 산업은 특정 분야 하나만을 키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간담회는 연구의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창원시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 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2026. 3. 5.(목)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창원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원형 산업고도화 전략 제시

✎ 신환철 기자 ④ 승인 20260504 19:12

4일 최종보고회 개최...제조업 기반 고도화·에너지 연계 전략 필요성 강조



창원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 창원형 산업고도화 전략 제시

[엔디엔뉴스 신환철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4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친화형 산업고도화 실행전략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 결과, 창원시는 기계·조선·방위전기·에너지 산업이 집적된 제조업 중심 도시로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 구조의 한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부족, 청년·전문인력 유입 감소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고도화와 함께, 전력·에너지 설비 등 관련 산업 기반을 활용한 산업전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 2026. 5. 4.(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활동 결과

(단위 : 건)

합 계	간담회 및 보고회	토론회 및 강연회	비교견학	연구용역
4	3	—	—	1

연구활동 결과

- 연구회는 창원특례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전략산업 육성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산업동향 자료, 지역 주력산업 현황, 정부 정책 흐름 등을 바탕으로 기초 조사와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창원의 제조업 기반, 산업단지 구조, 방위·기계·조선해양·에너지 관련 산업 여건을 검토하고, 제조 인공지능 및 산업 AX, 방위산업 고도화, 지능형 기계·로봇, 원전 및 에너지 설비, 친환경 조선해양 등 창원과 연계 가능한 미래전략산업 후보군을 논의하였다. 또한 울산, 구미 등 국내 산업도시와 해외 제조혁신 도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창원이 기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후보산업별 성장 가능성, 지역 연계성, 정부 정책 적합성,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창원시의회가 산업정책 방향 설정과 예산·사업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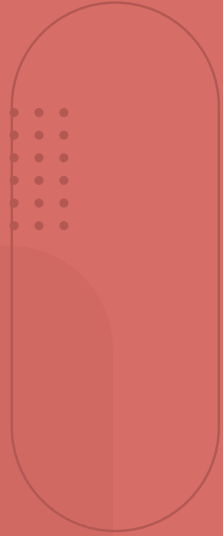
정책연구 용역 결과

- 본 연구의 성과는 창원특례시가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에서 제조 인공지능과 첨단제조 기반의 미래전략산업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특례시의 산업구조, 주력 제조업 기반, 산업단지 특성, 정부 정책 흐름 및 대외 산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원형 미래전략산업 후보군과 우선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특히 제조 인공지능 및 산업 AX, 방위산업 고도화, 지능형 기계·로봇, 원전 및 에너지 설비, 친환경 조선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창원의 기존 산업기반과 연계 가능한 성장 분야를 검토하였으며, 각 산업별로 성장 가능성, 지역 연계성, 정부 정책 적합성,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울산, 구미 등 국내 산업도시와 해외 제조혁신 도시 사례를 비교하여 창원이 단순한 산업 유치나 신산업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제조역량을 고도화하면서 미래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행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제조 인공지능 확산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중기적으로 산업 간 융합과 실증 중심 프로젝트 확대, 장기적으로 친환경 조선해양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단계별 실행전략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실행체계 구축, 산학연관 협력 강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 타당성 보완,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 향후 창원특례시와 창원시의회의가 정책 검토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창원특례시가 기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 방위, 로봇, 원전·에너지, 친환경 조선해양 등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 연구회는 이번 연구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특례시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방향이 실제 정책·예산·사업 검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 기준과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조 인공지능 및 산업 AX, 방위산업 고도화, 지능형 기계·로봇, 원전 및 에너지 설비, 친환경 조선해양 등 핵심 분야별 추진 과제에 대해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 심의, 정책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창원의 기존 제조업 기반과 정부 정책 흐름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산·학·연·관 협력체계와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략산업별 실행 가능성과 정책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창원특례시가 단기 성과와 중장기 산업전환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관광 정책개발 연구회

CHANGWONSPECIAL CITY
COUNCIL

인사말씀



관광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 **김 혜 란**

반갑습니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 김혜란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개발연구회'는 창원시가 보유한 지역 관광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창원의 문화·자연·산업 자원을 현대적인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연구회는 「창원시 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창원시 온천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온천 지역인 북면 마금산온천지구와 마산 양촌온천지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 로드맵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관련 법·제도와 기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국내외 우수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성, 시설 및 안내 체계,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 인근 관광 자원과의 융합 가능성 등을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시 온천지역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과 세부 추진방안을 비롯해 교통·편의시설 확충, 안내·브랜딩 개선, 민관·산학연 협력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지원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제안하는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창원시 관광 정책의 든든한 밑거름이자 조례 제·개정 등 관련 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 회원



대 표
김 혜 란



의 원
구 점 득



의 원
김 우 진



의 원
박 선 애



의 원
서 영 권

「관광정책개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개요

- **기 간** 2026. 1. 23. ~ 5. 8.
- **주 제** 창원시 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 **목 적** 창원시의 마산, 창원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온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통해 창원시의 관광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회원** 5명(대표 김혜란, 구점득, 김우진, 박선애, 서영권)

연구활동

내용

- 2026. 2. 2.(월) 관광정책개발연구회 간담회 개최
- 2026. 2. 27.(목) 「창원시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용역 시행
- 2026. 3. 5.(목)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4. 27.(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 관광정책개발연구회 간담회 개최

- 일 자 2026. 2. 2.(목) 10:3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2026년 연구활동 세부계획 및 연구용역 일정 논의



2. 정책연구용역 시행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창원시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사)미래정책연구원	2026. 2. ~ 5.

3.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3. 5.(목) 16: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진행 방향·세부계획 논의 및 질의응답



4.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4. 27.(월) 16: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연구활동 언론 보도자료

[창원시의회]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 지역 온천 경쟁력 강화 나서

5일 착수보고회 개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보훈방송=이정혜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는 5일 창원시 북면 마금산온천과 마산 양촌온천을 중심으로 온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연구회는 이날 '창원시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온천관광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에 착수했다.

특히 스포츠 인프라와 연계한 온천 관광벨트 조성, 관광 교통 연계 전략,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르는 온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란 대표의원은 "온천관광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창원의 중요한 관광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창원 온천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올해 5월까지 진행되며 관광 종사자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민국 보훈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 1 '보훈의 가치 널리 전파' 보훈방송-전우와함께 MOU
- 2 정부,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슬로건 발표
- 3 보훈부, '제3기 2030청년지원단' 발대식
- 4 '제88주년 4·19혁명 기념식' 거행
- 5 홍원도 장군 "1888년 8월 27일, '형량' 줄생' 일원화

주요기사

- 정부, '6·25 무연고 전사자들' 전수 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 '독립유공자 2대(10)까지 보상금 확대'...새년부터 시행
- 보훈부-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보훈대상자 1만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 보훈부, '美 서부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청년 참가자 100명 모집



▲ 2026. 4. 27.(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활동 결과

(단위 : 건)

합 계	간담회 및 보고회	토론회 및 강연회	비교견학	연구용역
4	3	—	—	1

연구활동 결과

- 관광정책개발연구회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천지역인 북면 마금산온천지구와 마산양촌온천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를 갖춘 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였다. 온천관광 활성화의 개념과 그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관철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여 온천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온천활성화의 지구별 주요 관광거점과 잠재 관광지를 방문해 접근성, 편의시설, 안내 체계, 상권 연계를 확인하고, 주변 관광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창원에 적합한 온천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창원시의 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세부 사업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정책연구 용역 결과

- 본 연구용역은 창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온천지구를 대상으로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하여 이를 통해 창원시의 관광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와 기존 계획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접근성, 시설·안내 체계, 상권 연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였다.
- 북면마금산온천과 양촌온천지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각 온천지역별로 부합할 수 있는 온천관광활성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북면마금산온천은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온천지역 인근의 낙동강 수변생태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캠핑장,

드론경기장 등의 조성방안을 제안하였고 주남저수지 생태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교통체계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근 마금산과 달천계곡 등의 등산객 및 방문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마산양촌지역은 단순 방문형 온천방문객들을 중장기 체류형 관광객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인근 거락계곡 등을 활용한 사계절 관광 인프라 조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파크조성, 공가건물을 활용한 유스호스텔 조성, 일본 료칸 온천관광을 벤치마킹한 한옥게스트하우스형 온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안하였고 공통적인 모델로 지역별 온천브랜드 및 BI 조성, 온천지역 특화 음식개발, 지역특성화 온천 축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창원시 온천지역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과 세부 추진방안, 교통·편의시설 확충, 안내·브랜딩 개선, 민간·산학연 협력 전략,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지원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향후 계획

- 본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창원시 온천관광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재정비하고, 관내 온천지역별 핵심 거점과 우선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다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통계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 및 행정자원 배분에 반영하고, 낙동강수변생태공원·달천계곡·주남저수지·해양·도심권 등 주요 관광거점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제안과 조례 방향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과 성과 점검·환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지방재정 연구회

CHANGWONSPECIAL CITY
COUNCIL

인사말씀



지방재정연구회
대표의원 **박 해 정**

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연구회 대표의원 박해정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연구회'는 창원시 재정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예산과 결산 심의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의회의 정책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회는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자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의 예산 현황과 최근 3년간의 결산 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집행률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관별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추경 운영, 이월·불용 현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본 결과, 해마다 반복 되는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는 등 재정 운용의 가려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가오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결산 검사 과정에서 의회의 재정 감시 및 합리적인 정책 제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연구회'는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들이 선심성 행정이나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예산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지 주의깊게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연구회」 회원



대 표
박 해 정



의 원
이 우 완



의 원
이 원 주



의 원
정 길 상



의 원
한 은 정

「지방재정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개요

- **기 간** 2026. 1. 23. ~ 5. 8.
- **주 제**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 **목 적** 창원시설공단,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강화 하고자 함
- **연구회원** 5명(대표의원 박해정, 이우완, 이원주, 정길상, 한은정)

연구활동

내용

- 2026. 2. 13.(금) 「창원특례시의회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연구용역 시행
- 2026. 3. 6.(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5. 4.(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 정책연구용역 시행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창원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심의 연구	(주)나라살림연구소	2026. 2. ~ 5.

2.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3. 6.(금) 16: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진행 방향·세부계획 논의 및 질의응답



3.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자 2026. 5. 4.(월) 11:00
- 장 소 의회 소회의실
- 내 용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연구활동 언론 보도자료

시사코리아저널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 공기업·출연기관 예산 운영 점검 나선다

착수보고회 개최-창원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모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박해정)는 6일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창원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구조와 재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회는 기관별 예산 규모와 사업 구조를 분석해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박해정 대표의원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기관별 재정 운영을 면밀히 검토해 창원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6. 3. 6.(금) 정책연구용역 보도자료

신아일보

창원시의회, 공기업 출연기관 재정 효율화 방안 제시

지방재정연구회, 예산 분석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지난 4일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창원시설공단,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3~4년간 예산·결산 현황과 주요 사업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최소화 △예산 운용의 안정성 제고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및 평가체계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규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예산을 계획에 맞게 운용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사업별 예산 집행률의 편차가 크고, 주요 사업의 경우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돼, 전반적인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예산 규모 분석을 넘어 공공기관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구 결과가 향후 예산 심의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

연구활동 결과

(단위 : 건)

합 계	간담회 및 보고회	토론회 및 강연회	비교견학	연구용역
3	2	—	—	1

연구활동 결과

-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및 창원문화재단의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분석하여 해당 기관들의 예산운용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창원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예산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재정구조, 예·결산 구조의 복잡성, 정보의 비대칭성, 짧은 심의 기간 등으로 의회의 통제 기능이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문기관의 해당 기관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의 심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정책연구 용역 결과

- 「창원시의회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연구 용역」을 통해 창원시설공단,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의 2023년~2026년 예산 분석, 3개 기관의 2023년~2025년 결산 분석, 2025년 주요사업 분석 집행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창원시설공단의 분석 결과, 2023년에 추가경정예산 5회, 2024년 추경 5회, 2025년 추경 7회를 실시하였는데, 해당연도 당초예산액 대비 최종 추경예산액의 차이가 예산규모의 5% 미만임에도 과도한 추경작업이 이루어져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창원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 2023년과 2024년 본예산과 최종예산액의 차이가 10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내용과 2023년~2025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69.0%~82.1%로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점 등이 확인되었다.

- 창원문화재단의 분석 결과, 2023년~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 순 세계잉여금을 매년 50,000,000원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2025년 순 세계잉여금 결산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기에 정확한 추계에 기초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필요성과 2025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이 86.6%로 2023년과 2024년과 비교하여 낮은 점 등이 확인되었다.
- 또한, 3개 기관 모두 2025년 주요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 확인되기에 해당 기관과 부서에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집행에 특별한 노력이 요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계획

- 지방재정연구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9월에 예정된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수납율 저조 과목, 지출율이 저조한 사업 및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창원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심의의 기초자료로 삼아 창원시 해당 부서의 전출금과 출연금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의회

<https://council.changwon.go.kr>

발행일 : 2026년 6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의회사무국(용호동)